

(신춘논단)

영농수지 개선등 육구 충족시책야

◎ 도시청소년의 농촌유입대책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최 민 호

1 도시 청소년들의 농촌유입 가능성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농촌에서 이주하여온 도시청소년들이 농촌으로 환류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하지만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농촌청소년들의 농촌탈출현상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950년에 학교를 졸업하는 농촌청소년들이 영농에 취업하는 수는 44만명이나 되었지만 1975년에는 1만명선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일본 농가의 $\frac{2}{3}$ 가 그들의 영농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日本, 70년경부터 환류늘어

그러나 이러한 현상속에서도 1970년경부터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한 청소년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청소년의 수가 매년 2만명 정도나 되어서 영농후계자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여 주고 있다. 근래와서는 그 수가 더욱 증가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이농하는 농촌청소년의 수보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환류하는 청소년의 수가 능가하고 있어 영농후계자 문제가 호전되는 실정에 있다고 한다.

일본의 농촌현실을 미루어 볼때 우리나라도 이러한 청소년들의 농촌 환류현상이 불원간 다가올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시간적으로 얼마나 빨리 그러한 현상이 초래되게끔 하느냐가 우리들의 과제인 것이다.

도시청소년들의 농촌유입대책은 반드시 농촌출신 도시청소년을 환류시키는것 뿐만 아니라 도시출신 도시청소년들도 농촌에서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유도하는 대책도 포함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다.

서울출신 농촌유입자도 상당수

현재에도 도시출신으로서 중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그들의 신념을 따라 또는 그들의 적성과 흥미를 따라 농촌에서 영농생활을 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들어가는 청소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상당수 있을 것이며 특히 도시출신 고등학교졸업생들이 농과대학에 진학하여 농촌으로 유입되는 대학졸업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외에도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몇 번 보도가 되었지만 농촌청년과 도시처녀를 짝지워주는 새마을운동 등 민간차원에서의 노력과 지원으로 도시청소년들이 농촌으로 유입되고 있어 우리가 연구하고 적절한 대책만 수립하여 나간다면 그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아니할 것이다.

2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과 문제

우리나라는 근래와서 매년 농가인구중 약 50~60만명이 도시로 탈출하고 있어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

되고 있다. 197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반이 농가인구였으나 1981년에 $\frac{1}{4}$ 로 줄어들어 현재 1천만 명정도이다. 도시로 이주하는 농가인구의 연령층을 보면 15~24세의 농촌청소년들이 가장 많으며 적을때는 20만명 많을때는 30만명가량 된다.

청소년, 20~30만명 유입

이렇게 많은 농가인구가 도시로 물러가고 또한 도시자체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도시는 사람들로 들끓고 있다. 신문지상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주택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교통사고, 범죄사건, 풍기문제 등 여러가지 도시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는 사람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이 바로 도시인구과잉에서 유발되고 도시사회문제를 단적으로 말하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자가 많고 직장없이 上京

15세~24세 사이의 도시로 이주하는 농촌청소년을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2~3만가량 더 많이 도시로 나오고 있다. 이들은 가족과 함께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약 반수이며 나머지 반은 단신으로 농촌을 떠나 번잡하고 소란한 도시로 옮겨 온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단독으로

□ 도시청소년의 농촌유입대책 □

도시에서 오는 청소년들의 약 1/2은 미리 직장을 구하지도 않은채 농촌가정을 떠나 도시로 와서 직업소개소, 친척, 친지 등을 통하여 직장을 구하여 도시에서 정착하고 있다. 부모를 떠나 복잡하고 유혹의 손이 많은 도시에서 직장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적응이 쉽지 아니하며 더욱이 어린아이로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정착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특히 여성들은 잘못되면 술집과 유흥가 등으로 전락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女子, 술집 등으로 타락 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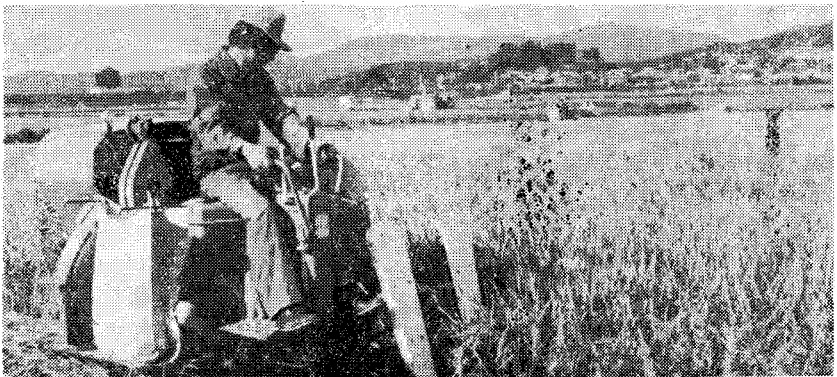
이와 같이 도시에도 청소년층의 인구가 많아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농촌에도 반대로 농촌청소년들이 부족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어 나갈 영농후계자들이 부족하여 국가와 사회가 크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매년 쌀, 육류, 채소, 과일, 사료 등 우리나라 국민이 소비하는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기 위해 매년 약 10억~20억 불가량의 외화를 쓰고 있다. 이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약 1조억 원에 가깝다. 우리나라 일년예산이 약 10조에 가까운데 우리나라 일년 예산의 $\frac{1}{10}$ 에 해당되는 거액을 외국에서 식량구입하는데 소비하고 있다.

후계자 부족해 유흥농지 생겨 매년 2천여명에게 자금도 융자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농업노동력이 부족하



◇ 영농후계자 육성 및 농촌청소년들의 귀농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각종 지원도 필요하지만 농민 스스로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여 농토가 완전히 이용되고 있지아
니하며 지방에 따라서도 유향화되는
경지가 없지 아니하다. 그래서 국가는
1981년부터 올해까지 1천억에 가
까운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을 마련
하여 매년 약 2천명의 농어촌청소년
들에게 5백만~1천만씩의 자금을 용
자하여 주고 있다.

이와같이 농촌청소년이나 도시청
소년을 농촌발전과 식량증산의 역군
으로 육성하는것은 국가적인 견지에서
서 대단히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이외에 농촌주민들도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뒤를 후계하여 주
어야 그들의 노년기 생활이 보장될
수 있으므로 농촌주민의 견지에서도
대단히 절실한 문제이다.

3.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대책

한마디로 말해서 영농수지가 보장
되고 농촌이 사회, 문화, 보건적인
견지에서 살기가 좋은 곳이면 구태
여 영농후계자육성문제는 제기되지
아니할 것이며 도시청소년의 농촌유
입대책도 거론되지 아니할 것이다.
현재 농민들은 그들의 영농수지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도시에 비하여
농촌이 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들의 자녀들과 함께 도시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영농수지 개선위한 노력을

어느나라 할것없이 그나라의 경제
발전과정에서 농촌인구의 도시이동
현상으로 많은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문
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관
건이 될 수 있는 대책은 그나라의
경제개발정책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우리나라도 영농후계자육
성중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국
가시책으로 많은 예산을 투하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농업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의 입장에서 볼때 미흡한
측면이 적지 아니하다.

수매가, 물가상승률에 뒤져

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1977년에
서 1981년사이의 5년간에 있어서 쌀
수매가격을 17.7%인상한데 비하여
도매물가인상율은 20.4%로 그 격차
가 크며 이기간동안에 농촌에서는
비료, 농약, 노임이 급격히 상승하
여 영농비용이 대단히 많아져 영농
수지가 크게 악화되었다. 1982년도
의 쌀수매가는 도매물가인상율을 약
간 상회하였지만 1982년도의 물가안
정이 농산물의 저렴한 가격에 힘입
은바 크다고 볼때 7.3%의 인상율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정책도 문제

외국에서 수입하여 오면 국내가격보다 저렴하다하여 소위 비교우위정책(比較優位政策)에 의하여 육류, 특용작물 등은 수입하는 농산물수입 개방정책, 농가에게만 책임을 부가하는 양특적자정책 등은 농가의 영농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기관 및 농민 노력보다 국가차원의 적극 지원 필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국가가 도시와 농촌간에 사회 경제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얼마나 큰 규모로 국가 경제개발에서 농업과 농촌발전의 비중을 높이는가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인구이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속에서도 농촌개발기관이나 조직이 그리고 농촌주민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큰 성과를 얻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 교육적 자원에서의 유입대책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을 보면 머리좋은 학생들은 대부분 법과대학과 의과대학으로 몰린다. 이러한 현상을 부정적으로

볼때 법과대학을 나와야 권력이 있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의사가 되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현대사회인의 의식구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권력, 물질 그리고 영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발전도 한곳으로 우수한 학생이 진출하여서도 아니된다. 개인적으로 볼때 그 학생의 적성에 따라 진출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있는 인생의 참보람을 누릴 수 있음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 더 통감하게 되는 것이다.

적성무시한 학과선택도 문제

우리나라 교육은 한마디로 말해서 학생들의 적성개발을 지나치게 등한히 하고 있다. 선진외국에서 보면 국민학교때 부터 여러가지 직업에 대해서 그 특성과 장단점 등을 얘기하여 주고 그들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직업을 택하도록 지도하고 생애교육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국민학교교육에서 앞으로 그들이 선택할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교육활동을 강화할때 그들이 보다 더 그들의 적성에 따라 그들의 진학방향을 보장할 것이며 사회진출에 있어는도 골고루 훌륭한 학생들이 다방면으로 진출하게 된것이다. 필자는 어릴때

전원생활을 꿈꾸고 농과대학에 진학하였고, 농과대학에 진학한 친구들 중에는 법과나 의대를 갈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도 없지 않았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적성에 따라 또는 국가발전의 중요성, 그리고 못사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서 등 여러가지 바람직한 이유로 농과대학에 진학하였는데 이들이야 말로 농학을 공부할 가치가 있는 학생들이요 이들의 대부분은 농촌에 머물면서 영농생활이나 농촌운동을 전개할 사람들과며 각직장에서 농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다.

국민학교 때부터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보다더 그들의 진출분야나 직업에 대한 생애교육(生涯教育)을 강화하여 나갈때 목장경영, 과수원경영, 화훼, 시설원에 등 농촌에서의 영농분야로 그들의 적성에 따라 진출하는 도시청소년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믿는다.

농업종사자에 대한 흥미개발

오늘날의 농업계 고등학교는 보다더 농업을 전공하고 학생들에게 그들의 적성과 흥미를 농업분야와 연결시키는 교육을 강화하지 아니하는 한 오늘날과 같은 실정에서는 현수준인 졸업생의 15% 이상을 영농후계자로 배출하지 못할 것이며 농촌진

흥청에서 전개하는 새마을청소년회 활동도 보다 교육적으로 접근하여 그들에게 영농생활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개발하는 과제활동을 전개하지 아니하는한 그들의 농촌탈출을 방지하지 못할 것이다.

農大졸업 영농자 10%미만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농과대학이 20여개 있어서 많은 도시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이 진학하여 온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경우는 적어도 80%의 학생들이 도시출신학생들이다. 이들의 졸업후 진출 방향을 보면 그들의 대부분이 도시에 머무르면서 직장으로 취업을 하며 농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농업분야 공무원 또는 농협, 축협, 농진공사, 농어촌개발공사, 농약회사, 종묘회사 등 농업관계직업으로 진출하는 졸업생들은 50%미만이다. 특히 이들이 농촌에서 근무하는 직종으로 진출하는 졸업생은 10%도 되지 아니하다.

이러한 현상은 농과대학교육의적인 이유가 크지만 우수한 인력이 농업관계직으로 그리고 농촌으로 진출하고 있지 않다는 현상은 우리나라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 역시 대학졸업생이 농촌에 있는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뒤지지 아니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때

농촌으로도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5 농촌 주민의 자조적 참여 노력

한 지역사회의 발전은 외부에서의 지원과 도움에 의하여 이룩되는 측면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나 지역사회주민의 자조적 노력에 의하여 이룩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그 발전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이다.

농촌사회주민들이 보다더 자발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농촌개발사업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동시에 그들의 책임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진정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지도자의 능동적 헌신 아쉬워

특히 농촌지역사회의 지도급인사

들은 그들의 개인적 이익을 초월하여 지역사회전체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오늘날과 같은 악조건속에서도 영농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하며 살기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사업을 장기적으로 전개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청소년단체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농촌에 남아서 그들을 후계하도록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 남녀간에 건전한 교제를 인정하고 청소년들의 특징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지도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생활하기가 좋은 농촌사회를 만드는데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내가 쓴 농약 빈병 한데 모아 환경보전”

(수집기간 : 3. 1~3. 31)

농민여러분! 내가 쓴 농약빈병은 내가 처리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농약빈병 수집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수집된 빈병은 농협이 수거하고 농약제조회사가 책임처리 합니다.